

## 그리스도(잠언8:22-36)

인간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옆길로 가고 부작용이 일어나 저주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인간에게 답과 해방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답이 되면 응답이 되고 축복이다. 답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응답받고 승리하고 지속하면 정복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을 전달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소원이 발견되어지면 더 크게 살게 된다. 응답도 더 정확하게 받게 된다. 성령 인도를 더 정확하게 받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절대적이고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이 언약을 받은 자는 세상을 넘어선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도 능히 승리한다.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어 버리신다. 이런 사람은,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만났다. 전부 말씀으로 해결이 되었다. 모래땅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목 말라 죽은 사람이 없다.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도 없다. 우물을 팠다는 기록은 없다. 가기 바쁘는데 농사를 짓겠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하신 이유는 하나 가나안 땅을 가야 하니까,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나안 땅을 안 가는데 이런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하나님하고 소원이 통하면 큰 인생을 사는 답이고 24시 인생을 살았다. 평생 하나님과 소통하고 평생 인생을 드렸다. 억지로 드릴려고 해도 안된다. 저도 해보았다.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약속의 피를 누리는 자는 뱀의 머리를 깨게 하시고 큰 인생 큰 응답받게 하신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때가 온다.

## 1.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이다. 솔로몬은 예수님 이전 1000년 사람이다. 그냥 잠언이 아니고 확실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정도이다. 25절에 천지 창조 조화의 시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니 태초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솔로몬 자신이 아니다. 창조대에 자신이 있었겠는가 태어날 계획은 있었겠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으니, 어떻게 세움을 받았다는 말인가 읽어보면 다 나온다. 그리스도로 창조자로 세움을 받았다. 무엇을 만들기 전에 24절 아직 바다, 큰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면 나는 솔로몬은 아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겠지만 나는 없었다. 25절 산,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7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질 때 내가 거기 있었다.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는 하나

님이시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29절 마지막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정하실 그때라고 표현하셨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신다. 그는 창조주이고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인 것을 기록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이 정도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나온다.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쳐주겠다고 가자고 할 때 거절하였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이런 사람 처음이라고 주님은 하나님이기 전에 가실 이유가 없고 말씀만 하면 바로 역사 일어난다는 고백이다. 솔로몬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주 정확하게 알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책에 기록해놓았다. 아마 솔로몬은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실 것도 알았을 것이다.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도 알았다 그것을 또 써놓았다.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다. 33절에는 훈례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는 지혜, 말씀이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 34절에는 날마다 내 문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문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지혜이다. 곧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복 있다 35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는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은총을 얻는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솔로몬이 물론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졌기에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거야 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를 뺄수는 없다. 36절에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 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자기 영혼을 얻고 죽지 않는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만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사망을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하는 자다. 누가 봐도 솔로몬의 잠언은 인간 잠언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가졌다고 하셨다. 창세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세움을 받았다고 이 모든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다고 하늘 궁창이 만들어질 그때에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항상 즐겁게 교제했다고 하였다. 1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요? 답이 있고 동시대 사람인 다윗도 멜기세덱을 알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수준이다. 잠언에 귀한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잠언 중에 잠언이다.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다. 사도바울도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아주 확신있

는 소리다. 자기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스스로 확인을 갖는 확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사람들이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할거야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살것이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 아니면 그들은 살길이 없으니까 나는 그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 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정도로 답이 나고 현장에서 확인한 자이다. 응답과 증거다. 그 이름으로 살았는데 이런 응답과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솔로몬도 그랬다. 내 아들들아 이도를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험하고 확인한 것이다. 우리도 이리 되어야 한다 너 내 따라오면 너는 인생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길거리에서 누구든지에게 말할수 있어야 한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내 도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교회로 온 것이다. 내 문결에서서 도를 사모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도 오늘 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라 뻔히 아는대도 잘 안되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고 질문을 하셨다. 이 질문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걸려있다. 응답은 여기서 나온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오늘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신앙고백이 놀랍다. 보통 사람들은 가자고 하면 춤추고 난리날것인데 놀랍지요 답이 났으니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없다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하인이 낮겠노라고 고백한 것이다. 솔로몬도 이런 사람이다. 속담 책하나 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봤지만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를 벗어난 적이 없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정곡으로 설명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다시한번 언약을 잡아야 한다,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야 한다.

## 2.기도하는 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에 말씀을 잡았다 오늘 이 단어가 올해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성전, 빛의 경계, 빛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된 부흥, 300여정 세가지들의 여정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권세 있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것은 언약의 피로 인생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다. 약속의 피로 살아난 사람은 세상에 무엇에든지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항상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승리를 못 할 때도 있다. 어떻게 늘 승리를 하냐고 반격하는 자도 있다. 지금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놀리고 문제에 잡혀 있을 때는 진짜 응답받으라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에 응답을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응답 없이는 거기서 나올자가 없다. 문제를 해결 할수 없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는 언약을 성취하시니 놀랍다 기도는 도구이다. 기도가 성취되는게 아니고 기도할 때 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비밀을 성경에 많이기록해놓았으니 다시 한번 언약되기를 바란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나쁜기도 좋은 기도 없다. 하나님이 기도를 고쳐서라도 응답을 하신다. 그러니 기도는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기도를 고쳐서 응답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한나이다. 잘 아는 데로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에 생명건 사람이 아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 요나는 도망갔다. 하라는데 안갔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순간에 둘다 웃었다 안된다고 웃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환도뼈를 찼다. 왜냐면 하나님과 안맞았다 뼈를 부러뜨릴 만큼 정신을 차려야 할만큼 옆으로 갔다. 심지어 10명의 정탐꾼들은 밤새도록 불신앙으로 울었다. 그래도 필요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작품을 눈으로 전부 다 보았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언약을 잡고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금요일에는 치유를 놓고 기도한다. 물론 교회를 두고 후대를 두고 237,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함께 은혜 받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하고 그들이 많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있다. 함께 중보기도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리스도 보혈은 안되는게 없다. 나를 고치는 과정이 안되는 것 처럼 보인다. 천국열쇠는 안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안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그 말씀과 안맞는 것이기에 근본치유이다. 이 치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답이 그리스도이다.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도 바뀌어 인생전체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고 방법이다.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옆에 앉은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앞에 귀한것인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올해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기도하는 해로 언약을 잡고 올해 끝까지 갈 것이다. 진짜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발견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 답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잡는다 무슨 이유가 있다. 어떨때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 몰라도 관계 없다.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진짜 언약잡고 승리하고 정복하기를 바란다.